

■ 이달의 인물 — 6·25참전유공자회 고영철 남구지회장

국가유공자 자존심 살려줬으면

나라 구한다는 마음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

자유 평화의 소중함 젊은 세대 일깨웠으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운 조국을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 및 6·25참전용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뜻을 들기위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부산광역시 남구지회' 지회장 고영철(대연동·80)씨를 찾았다. 이 단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로 이뤄졌으며 2002년 재향군

인회에서 독립 후 창립해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삶에 대한 집념과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시작되는 고영철씨의 전쟁 경험담과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충북 영동 출생인 그는 6·25전쟁이 터지자 소년 학도병의 일원으로 서 국군의 대열에 합류했다. 대구제1훈련소 5교육대에서 목종으로 한 달간 훈련을 받은 후 '11020전공병단'에 배치되어 군번(0118197)과 합



계 M1소총을 지급받고 2등병 계급장을 달고 본격적인 전쟁에 뛰어들었다. 서울을 거쳐 평북 덕천까지 복직하는 동안 지뢰 제거, 철조망 설치, 다리 건설, 도로 복구 등 공

병 임무의 소임을 다했다.

전쟁터는 참혹하고 비참했다. 덕천전투에서 수많은 전우의 전사 장면을 지켜보았고, 후퇴하는 인민군이 우의 동포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현장도 목격했다. 심지어 어린이 이까지 희생당했다고 한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국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25가 남긴 지점인 지 모르는 청소년도 있다.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점차 잊혀 가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덕천전투를 떠올리면 보습이 끊겨 몇 끼를 굶은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적의 총상에 희생당한故 김병태 전우 생각이라고 한다. 대구 훈련소에서 만나 생사고락을 함께했기에 옆에서 죽음을 지켜보는 일이란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다고.

1951년 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은 더 이상 복직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된다. 고씨 역시 평양으로, 다시 서울과 제전을 거쳐 경남 양산까

지 후퇴하였다.

"계속되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전투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강'에 가까운 애국심이었지 싶다"라는 그는 이후 전북 남원의 선암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었다. 3여 년 동안 교박 전쟁터를 누빈 고씨는 휴전이 되고 도 경기도 포천의 5군단에서 근무하다 1964년 중위로 예편했다. 그 후, 1986년 영도경찰서 경사로 퇴직할 때까지 사회지안을 담당하였다. 권으로 고씨는 참전유공자회원들의 권익은 물론, 청소년 안보교육과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제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운 참전용사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빛이 바랜 것을 슬퍼한다. 큰 보상보다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노병의 눈빛이 여전히炯炯하다.

김정화 기자



이기대 찾은 소설가 "좋은 작품 써 보고 싶어요"

남구는 지난 18일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와 오륙도에서 소설가 초청 이기대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수 부산문인협회 소설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소설가 연합회 소속 문인 20여명이 참석해 이기대 솔바람쉼터~동생말~어울마당 구간을 걸으며 작품을 구

상했다.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호 부구청장은 이날 초청 문인들에게 이기대 유래와 명소 등을 손수 설명하며 창작활동의 소재로 삼아 아름다운 남구를 널리 알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이 오륙도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화제의 인물

78세에도 스포츠댄스를 ...

용호복지관에서 운동 지도하는 용호2동 손금 자씨



매주 월요일 오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나는 스포츠댄스의 향연이 펼쳐진다. 무대의 주인공은 30여 명의 할머니들.

두 명씩 짝을 이뤄 춤을 추는 동안 손동작, 발동작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며 지도하는 할머니가 있다. 올해 78세이신 손금자 할머니. 12년째 조교로 봉사하며 건강은 물론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있다.

손 할머니는 초량에서 태어나 부산의 명문여고를 졸업했다. 그 당시 은행에서 몇 년 근무하다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다.

나이가 드니 건강에 자신이 없어 60세부터 운동을 시작했었다. 스포츠댄스는 음악과 함께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그야말로 신이 났다. 열심히 따라 하다 보니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도 챙기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일거

양덕의 멋진 생활체육이었다.

할머니의 스포츠댄스 자랑은 끝이 없다. 지난 5월에는 각 구대항 경연대회가 열렸고, 여름에는 사회체육센터, 가을에는 노인협의회 주관으로 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1년에 3회 정도 대회가 있으니 꾸준히 연습하고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며 상도 많이 땀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스포츠댄스 강습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노래 교실과 레크리에이션 교실에도 틈틈이 참여하며 복지관의 산 증인으로 즐거운 인생의 표본처럼 살고 계신다. 또한 매일 아침이면 백운초등학교에서 운동 나온 이웃들에게 스트레칭도 지도하고 함께 걸으며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할머니의 행복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최정순 기자

한서미술대전 대상

김동봉(용호1동)씨는 지난 1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에서 부산시의회 의장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통일부장관상 수상

이예림(문현여고 1) 학생은 지난 6일 한국어능력평가원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통일시상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성주섭(홍조근정훈장)



장종원(녹조근정훈장)



남홍우(녹조근정훈장)



차홍길(녹조근정훈장)



정두근(녹조근정훈장)

■ 우리구 사람들

“환경의 소중함 일깨워야죠”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윤현수 회장



이기대 반딧불이 행사를 해마다 열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주민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를 6년째 이끌고 있는 윤현수 회장(60 용호3동)이 바로 그 주인공.

윤 회장은 지난 2001년 발족된 협의회 원년 멤버로 활동하며 이기대반딧불이 축제 등을 해마다 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어른들에게는 유년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지난 9월 이기대 큰고개 쉼터에서 열린 이기대 반딧불이 만나는 날 행사장에서 만난 윤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올해로 반딧불이 관찰 행사가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남구가 부산의 대표적인 정경지역임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윤 회장은 또 환경사랑 글짓기 대회와 사생대회도 지켜보며 희망을 보았다.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환경 사랑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미래 환경지킴이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이지순가락을 치켜세웠다.

윤 회장은 행동하는 환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어느 곳, 어느 때든지 휴지 등을 줍고 다니는 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오륙도생태체험, 환경학교, 숲체험 그린스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이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협회회의 위상을 높였다.

윤 회장은 “회원들과 힘을 모아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남구를 환경생태 도시로 가꿔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유경희 기자

“맛있게 드실 때 보람 느껴요”

매주 어르신들께 국수 대접 감만1동 김연순 씨



감만1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순(47)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들께 국수를 대접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가게에서 시작한 연순씨의 국수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처음 30~40명이 찾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80명을 넘어섰다.

연순씨는 장사를 하는 처지라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수를 먹기 위해 가게를 찾아 주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멀리 두 시간을 걸어서 오시는 할머니도 있어요. 가게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등을 두드려 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가슴 뿌듯하죠. 힘 닿는 데까지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를 봉양했다는 연순씨가 처음 국수를 대접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가게 인근의 어르신들 때문이다. 10여 년 전

장사를 시작할 때는 건강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어느새 연로해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 한가 걱정이 라도 덜어드리자는 의미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유지들과 지인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

연순씨는 무료 급식이 있는 날마다 빠짐없이 찾아주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어 감사하다. 각종 단체장들은 국수와 각종 재료를 사는데 보태라며 십시일반 금일 봉을 내놓기도 해 연순씨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른 봉사에도 열심인 연순씨는 무료급식소를 마련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사랑의 국수를 대접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실제 요리 사진입니다!!!

제사·폐백·이바지 음식

예약문의 626-0662

홍동백서 위치: 남천동 해변시장

집안 풍습에 따라 맞춤형 주문 가능합니다 /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들어 당일 배송

무료 구독 체험권 (1.499)

"나에게 꼭 맞는 신문"

깊이 있는 분석기사,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뉴스 전달, 세상원가의 즐거움을 더해 줄 새로운 색선 추가 등 중앙일보의 실용성은 계속됩니다.

기본 고객 이벤트

기본 고객께서 이웃고객을 소개하실 경우, 초청의 사은품 지급 (사은품은 아래의 연력제로 문의)

구독 신청 및 기타문의

대연 627-0471 문현 632-4861
용호 622-9620 감만 627-7703

무료 구독체험권 확인 후 연락을 주시는 분은 무료로 중앙일보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호레포츠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여름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행사

위치: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2011년 7월 4일

수강료: 6만원 월, 수, 금 10:00~11:00 (10명)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카페만들기 사진올리기				
대상: 남구주민(주부, 노인, 실직자) 선착순 10명					
국비 노동부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본인부담금
CAD실무	7월 개강 (학원문의)	2개월	11:00~13:00 (월~금, 주5일)	10명	12만원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11:00~13:0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사무직전문가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13:30~15:3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대학졸업자, 일반인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 (교재비 월 5만원 지급, 선착순 마감)

대연부정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 옆, 베이직하우스 8층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 급여의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